閨房美談 규방미담

화셜 ᄃᆡ명 가졍년간의 일위명ᄉᆡ 잇스니 셩은 동이오 명은 ᄇᆡᆨ희오 ᄌᆞ는 졍원이니 항쥬 사람이라 부친에 됴셰ᄒᆞ고 모부인 황씨를 뫼셔 효되 지극ᄒᆞ고 실즁의 두 ᄋᆡ희와 ᄒᆞᆫ 쳡이 잇스니 다 용뫼 졀셰ᄒᆞ고 셩ᄒᆡᆼ이 온슌ᄒᆞ며 ᄌᆡ덕이 겸비ᄒᆞ더라 동공이 셜삼의 남부인을 ᄎᆔᄒᆞ고 즉시 등과ᄒᆞ여 옥당한원의 츌입ᄒᆞᆯᄉᆡ 상춍이 융〃ᄒᆞ니 만됴의 경ᄒᆞ더라 잇ᄯᆡ의 ᄯᅢ상국이 잔ᄌᆡ상이 ᄒᆞᆫ ᄯᆞᆯ을 두ᄂᆞᆫ지라 ᄎᆔ로 구ᄒᆞ되 ᄇᆡᆨ냥 오리ᄒᆞ여 금슐이 화흡ᄒᆞ더라 ᄒᆞᆫ시 상표ᄒᆞ여 쇼분영친ᄒᆞᆯ ᄯᆡ을 쳥ᄒᆞᆫ되 상이 윤허ᄒᆞ시니 즉일 이발ᄒᆞ여 항쥬로 나려갈ᄉᆡ 노상 ᄒᆡᆼ인이 ᄒᆞᆨᄉᆞ의 옥안화모를

칙칙 칭ᄒᆞᆫ 치아울이 업더라 길이 헌진 교울지나되
꼬상의 일라 ᄅᆞ 고우잇ᄂᆞᆫ 일위 미인이 나 가울의 지호여
학ᄉᆞ ᄯᅳᆯ 주며 보ᄅᆞ ᄒᆞᆫ 연이우으니 그 미인의 라ᄉᆞ로
치와 진ᄉᆞ 아미 결세 ᄆᆞ비 호여 낭리비의 ᄉᆡᆨ라 도비
연의 쳬질이라 도비 ᄎᆞ 못ᄒᆞ더러라 학ᄉᆞ ᄯᅳᆯ 향호여
일ᄉᆞ시 ᄯᅳᆯ 음영ᄒᆞ니 그 시의 갈왓스되

橋上誰家美少年 吉
다리우희 뉘집 아름다온 소년인고

青驢烏帽似神仙 乙
플은 나귀 거믄 서모 가신션 갓도다

若教李靖妝紅拂 爲也
만일 니졍의 홍불기 되든 일을 갈으쳐

喬木嗣來結好緣 乙
교목으로 이여 온디 조흔 인연을 ᄆᆡ지리라

학ᄉᆡᆼ 들으미 젼ᄐᆡ 가인이 요금세 복장이라 마ᄋᆞᆷ의 셔
일ᄉᆞ시 ᄯᅳᆯ 화답ᄒᆞ여 그 ᄉᆡᆼ낭 음ᄒᆞ나 기시의 왈

樓上誰家窈窕娘 古 다락우희뉘집요죠한낭잔고

紅顔綠鬢郎嘗粧 乙 불근얼골푸른살쩍은ᄌ긔단장일너라

若教蘇七隨才子 爲也 만일소ᄋᆡ가ᄌᆡᄌᆞ을ᄯᆞ라

柳碧青驄作一行 乙 뉴벽거와청총마로일ᄒᆡᆼ을지을이로다

음녕하기ᄅᆞᆯ맛치며꼬상을지나일모하거ᄂᆞᆯ락졈의ᄃᆞᆯ어촉을ᄇᆞᆰ히ᄂᆞᆫ야졋더니문밧긔인젹이요홀히거ᄂᆞᆯ그히ᄂᆞᆫ덕엿더니일위미인이문을열고ᄃᆞᆯ어오며눈ᄃᆞᆯ어보니ᄂᆞᆫ다른이아니라꼬상의셔글을던미인이라학ᄉᆡ놀ᄂᆡ오되그ᄃᆡᄂᆞᆫ어ᄃᆡ로셔일으럿ᄂᆞᆫ뇨미인이답왈쳡의셩명은ᄉᆞ홍년이오낙냥기생일너니앗가상공의풍모를흠모하여일ᄎᆞ시ᄅᆞᆯ음녕ᄒᆞ엿더니의외상공이화답

하시믈 어드ᄃᆡ 영힝ᄒᆞ미 극ᄒᆞ지라 바라건ᄃᆡ 승공
은 바리지 말으시고 기적을 면케ᄒᆞ션 후 거두
시믈 바라나이다 학서 미인 자석과 문장을 사랑ᄒᆞ
여 낙양부의 긔별ᄒᆞ여 기적을 면케ᄒᆞᆫ 후 이인을 거
ᄂᆞ려 고향의 도라와 모친게 뵈알ᄒᆞ고 사보의 현비 ᄒᆞᆫ
후 일〻 편락ᄒᆞ여 질기더니 쳔저 니부상서로 명죠
ᄒᆞ시니 학서 망결ᄉᆞ은ᄒᆞ고 즉일 모친을 뫼셔 가전을 거
ᄂᆞ려 승경ᄒᆞ여 젼폐의 ᄉᆞ은ᄒᆞᆫ 후 그덕으로 도라와 모친
황부인은 마최뎐의 거ᄒᆞ시게 ᄒᆞ고 원부인 남ᄌᆞ져는 봉
최정의 쳐ᄒᆞ게 ᄒᆞ고 창부인 계ᄌᆞ져는 봉최정의 쳐ᄒᆞ게
ᄒᆞ고 ᄌᆞ협ᄉᆞ낭ᄌᆞ는 응향각의 쳐소를 ᄒᆞ여 일가의 화긔
융〻ᄒᆞ고 ᄉᆞ인이 화묘월석의 시ᄉᆞ를 창화ᄒᆞ여 ᄉᆞ

시졸들의 빅해짐 ᄲᆞᆯ함 ᄀᆞᆺ더라 잇ᄯᅢ 가신 엄츙이
국ᄉᆞ를 쳔젼ᄒᆞ여 현션양계셩을 츅이되 승셰리면
ᄒᆞ여 승ᄌᆞᄒᆞ여 ᄯᅦ셩을 ᄌᆞᄒᆞ려다가 현뫼 젼쳡ᄒᆞᄉᆞ
상셔를 ᄂᆡ치ᄉᆞ 조츅자ᄉᆞ로 ᄒᆡ향보ᄂᆡ시니 자셔 즉일
ᄇᆞᆯ힝ᄒᆞᆯᄉᆡ 모친 황부인이 자ᄉᆞ의 손을 잡고 길이 탄
식왈 네 능히 가신을 ᄇᆡᆨ쳑ᄒᆞ고 직간이 당〻ᄒᆞ니 자
모의 ᄯᅥ나믈 엇지 근심ᄒᆞ리오 군자 조인의 조장치
니 츙효ᄒᆞᆯ 일이니 도라올 긔약이 머지 아니ᄒᆞ리라 자셔
ᄌᆡᄇᆡ 슈명ᄒᆞ고 낭위 조져와 사낭 겨를 작별ᄒᆞᆯᄉᆡ
자시 갈ᄋᆞ되 ᄯᅡᆨ〻 보졸ᄒᆞ라 ᄂᆡ 집을 ᄯᅥ나미 ᄆᆞᆺ더라
츅장ᄒᆞ리 업스니 조져의 본가 사람들이 보호
ᄒᆞ믈 ᄇᆞ라노라 ᄯᅦ 효졔 ᄇᆞᆯ회 ᄃᆡ〻 ᄒᆡ렬ᄒᆞ니

늘갑쇼졔뎡식쌀근져도졍의님졀ᄒᆞ여유결
의횡식이명졀의졔일이여늘여자빈잠시나별
을위ᄒᆞᆫᄒᆞ되쇼졔쇼졔리용손ᄉᆞᄒᆞ더라자시ᄉᆞᆫ곤
들도라보아갈오되네됴옹의동과쌀요편일을호
칙지아니ᄒᆞ려ᄒᆞ논다홍연이되답ᄒᆞ여갈오되졉
이모로미아니도뢰낭위쇼져물ᄒᆞ직ᄒᆞᆫ혼자ᄉᆞ
공을도취미져은혐의이ᄉᆞ니됴명을ᄶᅵᆺ드지못ᄒᆞ
리로쇼이라자식미쇼ᄒᆞ고갈오되내속히도라오리니됴
당을뫼시고각〻보홍ᄒᆞ라ᄒᆞ고ᄉᆡᆼ인이각〻일속시도를
지어작별ᄒᆞ니자ᄉᆞ시의쌀

超〻車駕向關山 爲

멀〻히속뎨를명에ᄒᆞ야관산을향ᄒᆞ되 尼

一種愁懷去駐間 乙

한씨근심회포가〻그ᄂᆞ무는사이로다

남효재시의 글

謫客天涯悲玉玦
佳人鏡裏老紅顔

伊 五 乙

귀향가는 손은 하날가의서 옥결을 슬퍼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거울속의 홍안이 늙는다

계효재시의 글

征雲別路遮香井
斜日空閨掩翠鬟

伊 五 乙

가는구름이 이별하는 길의 향긔로운 우물이 갈히고
빗긴날빗흔 고장의 프른머리를 가리웟더라

샹낭즈시의 글

明歲帝城春色至
早教夫婿及時還

巨 苐 乙

오는해 졔셩의 봄빗치 일을거든
일직이 부셔을 갈으쳐 띄의 미쳐 도라오라

장시 집을 써나 쳑효의 일으런지 세계 슴년이 되비티
힝의 가는 바라는 회포와 봄 한이 어질어 이나는
평셜을 형셰도 잇기어려워 일〻 즁가 호며 평셩

思蒙江上謫長顧但爲憶
薄命南浦地嘆我是客子
遺珮懷久空失拜永志中
恨泣獨行吟和君結同心
悲玦舒歌詩容顏帶嗟悲
目傍故鄉路夢回正春暮
斷魂園閨遥去家値花朝
一念惱懷想暫與愁愴望
身離而不還相係意如山
遠別阻佳期逢歡在何時

밧그로 듕굴게 쁜 칠언회문시 칠귀는
쳡원을 인ᄒᆞ여 남ᄌᆞ져의게 부치ᄂᆞ 모지게
쁜 오언회문시 십귀는 지방을 인ᄒᆞ여 께ᄌᆞ져
의게 븟쳐ᄂᆞ 가온ᄃᆡ 활보로 쁜 오언회문시 뉵
귀는 활방을 인ᄒᆞ여 상홍련의게 븟친 이라 밧그
로 칠언시는 쟝졍원 만슈고시 븟혀보아도로 몰
쳐보고 안의 오언시는 바로도 보고 갈오도 보아두가
지로지어 온을 일슈ᄒᆞ 가온ᄃᆡ 오언시는 별ᄐᆞ 젼
젼부터 시작ᄒᆞ여 伏가지 본후로로 돌려 보아
츙쟝ᄒᆞ니라
남ᄌᆞ쳐의게 보낸 칠언회문시 일곱귀 바로도
보ᄋᆞ께도 보고 ᄒᆞᄂᆞᆫ 법이라

뎨ᄉ뎌의 거보닌 오언횡ᄎ시 연귀 바로도보고
가로도보는법이라

恩蒙江上謫	尼爲	長顧但爲憶	乙
薄命南浦地	尼爲	嘆我是客子	乙
遺珮懷久空	尼爲	失拜永志中	乙
恨泣獨行吟	尼爲	和君結同心	乙
悪玦舒歌詩	尼爲	容顏帶嗟悲	乙

은혜로물부듬ᄭᅥ 강샹의 귀향가 길이 도라보고 다만 ᄉᆡᆼ각을 ᄒᆞ비 ᄒᆞ노라
박명ᄒᆞ여 남포 ᄯᅡ의 니가 ᄎᆞᆷ이 불ᄉᆞ식ᄒᆞ는ᄯᅥ다
픠옥을 깃치며 품이 오ᄅᆡ 뷔엿스니 실ᄇᆡᄒᆞ미 ᄯᅳᆺ가온ᄃᆡ 길게 엿도다
ᄒᆞᆫᄒᆞ여 울며 홀노 힝ᄒᆞ여 읇허스나 그ᄃᆡ 동심을 ᄆᆡᆺ는 것을 화답ᄒᆞ도다
원망ᄒᆞ는 결이 노ᄅᆡ와 시의 펴이옹 안이 슬프믈 ᄯᅴ엿도다

目傍故鄉路	尼爲	夢回正春暮	乙
斷魂園閨遙	尼爲	去家値花朝	乙
一念惱懷想	尼爲	暫與愁愴望	乙
身離而不還	尼爲	相係意如山	乙
遠别阻佳期	尼爲	逢歡在何時	五

눈이 고향 길의 ᄇᆡᆺ겨스니 ᄭᅮᆷ이 도라오ᄆᆡ 졍히 봄이 저무도다
혼이 ᄭᅳᆫ허저 ᄆᆡ 향원의 도장이 머니 집을 버리ᄆᆡ 화조를 맛낫도다
일념이 회상의 근뇌ᄒᆞ나 잠간 더부러 근심ᄒᆞ여 챵망ᄒᆞ는ᄯᅥ다
몸이 ᄯᅥ나 도라가지 못ᄒᆞ엿스니 서로 ᄆᆡ쳐 ᄯᅳᆺ지 산갓ᄯᅥ다
원별ᄒᆞ여 아름다온 긔약이 막혓스니 만나 질거으미 어ᄂᆡ ᄯᅢ의 잇슬고

남쇼져의시칠언팔귀오언팔귀ᄉᆞ오언구귀뵌그림과글보것

原文	標	번역
鵶鶺樓中腸寸斷	五伊	기작누가온디 창자가마듸마다끈허지고
鴛鴦枕上淚痕痕	乙	원앙침우희 눈물이방울흔젹이로다
三年洛下傷離別	五伊	삼년낙양에셔 니별을슬허ᄒᆞ고
千里江南惱夢魂	乙	쳔리강남의 몽혼이되엿도다
恨入東風芳草岸	五伊	ᄒᆞᆫ이동풍꼿다온풀언덕의불녀가고
愁深細雨落花園	乙	근심이가ᄂᆞᆫ비써러진꼿동산의깁허도다
良人不到床空臥	尼爲	양인이일으지아니ᄒᆞᆫ상우희츅졀업시누엇스니
鋪鄣殘糚晝掩門	乙	쇠잠흔단장을버리미나져문을가리왓도다
銀釭挑盡嚬眉翠	五	은등잔을도두어다흔뒤 눈셥의푸른거슬씽긔고
金字題成結恨幽	乙	금자를써일우미 ᄒᆞᆫ이맷쳐그윽ᄒᆞ도다

한문	토	언해
楊柳輕風春暮愁	五伊	양류의가뷔여온바람은봄져믄시름이오
梧桐細雨夜深愁	乙	오동의가는비는밤깁흔근심이로다
孤鸞對影塵飄帳	五伊	외로운난새그림ᄌᆞ를대ᄒᆞ매진이가장의나붓기고
雙鳳分飛月照樓	乙	쌍ᄒᆞᆫ봉황이난호와날매달이누의빗최는도다
回首天涯人遠隔	尼爲	텬이의회슈ᄒᆞ매사ᄅᆞᆷ이멀이ᄯᅥ러ᄉᆞ니
羅衫拭得淚紅流	乙	깁삼의눈물흔젹을씻섯도다
暗暗流紅淚	尼爲	암ᄋᆞᆷ히붉은눈물을흘이니
悄悄隔遠人	乙	초ᄎᆞ히먼사ᄅᆞᆷ이ᄯᅥ러ᄯᅡ
纖纖愁深夜	五	셤셤ᄒᆞ매깁흔밤을근심ᄒᆞ오
悽悽惡暮春	乙	쳐쳐ᄒᆞ매져믄봄을원망ᄒᆞ는도다

漢文		解
娟〻樓照月	爲尼	연〻히누의달이빗최고
寂〻帳飄塵	乙	젹〻히장의띄끌이나붓글랑
重〻幽恨結	爲尼	겹〻히그윽ᄒᆞᆫ〻이민치고
脉〻翠眉嚬	乙	믹〻히푸른눈섭이찡그엿도다
深〻門掩晝	爲尼	심〻히문이나지가리웟스며
日〻臥空床	乙	날마다빈상의누엇도다
灼〻園花落	伊五	작〻히동산의꼿치써러지고
處〻岸草芳	乙	쳐〻히언덕의풀이꼿답도다
寥〻魂夢惱	五	뇨〻히몽혼이뇌란ᄒᆞ고
惻〻別離想	乙	칙〻히별니ᄒᆞᄂᆞᆫ스름이로다

漸〻痕殘淚 五
졈〻히 ᄂᆞᆷ은 눈물 흔젹이오

悠〻斷寸腸 乙
유〻히 ᄎᆞᆫ장이 ᄭᅳᆫ허지ᄂᆞᆫ ᄯᅢ라

入來河水遠 爲尼
사람이 오고 하수 멀어쓰니

明月下西岑 乙
밝은 달이 서ᄉᆞᆫ의 ᄯᅥ러지다

계ᄋᆞ져의 시오 인네 지랑 그림과 글 본 것

君新
君方在身
君恨胡處天人
君去昔獨爲佳涯親
君來今同憶客夢遠
君情亦樓妾子
君最邊影
君樂

木落傾盃處 爲尼
나뭇닙 기우리ᄂᆞᆫ 고ᄃᆡ ᄯᅥ러지니

金鈿未似心 乙
금비녀 마음 갓지 아니ᄒᆞ도다

君來情最樂 伊五
그ᄃᆡ 오ᄆᆡ 졍이 가장 질겁고

君去恨方新 乙
그ᄃᆡ 가ᄆᆡ 한이 바야흐로 ᄉᆡ롭도다

君昔同樓影 加尼
그ᄃᆡ 젼의ᄂᆞᆫ 갓치 그림자 누를 보더니

君今獨處身 乙
그ᄃᆡ 이제ᄂᆞᆫ 홀노 몸을 두엇도다

君胡爲客子 五
그ᄃᆡ 엇지 손이 되ᄂᆞᆫ고

君亦憶佳人 乙
그ᄃᆡ 또ᄒᆞᆫ 가인을 ᄉᆡᆼ각ᄒᆞ리로다

君在天涯遠 爲尼
그ᄃᆡ ᄒᆞᆫ날 ᄀᆞ이 잇스ᄆᆡ

君邊妾夢親 乙
그ᄃᆡ ᄀᆞ의 쳡의 ᄭᅮᆷ이 친ᄒᆞᄂᆞᆫ도다

뎨오져의시칠언스무자리븐그림과글쁜것

鍾刺使座右

桂玉壺寄詩

去年送君下粧樓 加尼 거년의 그ᄃᆡ를 보내여 장누의 ᄂᆞ려더니

今年思君在天涯 乙 금년의 그ᄃᆡ를 ᄉᆡᆼ각ᄒᆞᄃᆡ 텬이의 잇도다

天涯一去無回期 為尼 텬이의 ᄒᆞᆫ번 가ᄆᆡ 도라올 긔약이 업셔ᄉᆞ니

粧樓春色似舊時 乙 장누의 봄빗치 녯ᄯᅢ 갓도다

鴈路南還鷰西飛 為尼 기러기는 남으로 도라오고 졔비는 셔으로 ᄂᆞ니

郎馬蕭蕭何時歸 五 낭군의 ᄆᆞᆯ이 쇼지ᄒᆞ이 어ᄂᆡ 도라오ᄂᆞᆫ고

長沙遊客夕陽遠 伊五 장사의 노는 손은 셕양이 멀엇고

渭城行人朝雨微 乙 위셩의 ᄒᆡᆼ인은 아ᄎᆞᆷ비 ᄌᆞ리적도다

悠悠歲月不相守 為尼 유유ᄒᆞᆫ 셰월이 서로 직히지 아니ᄒᆞ니

日暮斜掩翡翠袖 乙 날이 져믈ᄆᆡ 빗기 ᄒᆞᆫ 비취 ᄉᆞᄆᆡ를 가리도다

蕙炷猶殘鸂鶒香 伊五 난초 불 켠 초ᄉᆞ리 계측향이 ᄉᆞ라지고

蛛網斜着鴛鴦繡 乙 거믜줄은 원앙 슈노흔듸 빗겨 잇도다

東風搖碎綢簾影 為尼 동풍이 발 그림ᄌᆞ를 흔들어 부셔지니

海棠睡罷蓮池冷 乙 ᄒᆡ당화 조을ᄆᆞᆷ이 ᄭᆡ미 연지가 ᄎᆞ도다

柳腰瘦損壓珠袖 五 ᄇᆡ들 허리가 파리ᄒᆞᆫᄃᆡ 구슬 ᄉᆞᄆᆡ를 눌넛고

雲鬟擺亂斜金鳳 乙 운환이 흐터지며 금봉채 빗겨ᄯ다

抱得箏奏不成曲 爲尼 징을 안ᄒ며 곡조 일우지 못ᄒ고

絃斷鸞膠幾時續 古 줄이 끈허지미 난교로 어늬ᄯᅢ 이을고

寒薰翠被鬱金香 爲尼 푸른 이불이 울금향을 누이고

拂拭繡枕屛山綠 乙 수벼개의 병산이 푸른거슬 씻셧도다

年華容易隨春草 爲尼 화빗치 쉬이 봄풀을 ᄯᆞ로니

坐愁紅顔鏡中老 乙 홍안이 거울가운데 늙는거슬 근심ᄒ는도다

登樓日日望江南 爲尼 누의 올나 날마다 강남을 바라보니

千山撫斷人歸路 乙 일쳔산이 사ᄅᆞᆷ도라올길을 막앗도다

恨妾不爲綠綺琴 爲也 쳡이 거문고 되지 못ᄒᆞᆷ을 ᄒᆞᆫᄒᆞ나니

在君床頭奏悲音 乙 그ᄃᆡ 상우희셔 슬픈소ᄅᆡ를 ᄐᆞ게 ᄒᆞ노라

恨妾不爲金着刀 爲也 쳡이 칼이 되지 못ᄒᆞᆷ을 ᄒᆞᆫᄒᆞ나니

入君匣中照片心 乙 그ᄃᆡ 갑즁의 들어 ᄆᆞ음을 빗최가 ᄒᆞ노라

夢魂寥寥隔千里 爲尼 몽혼이 요요히 쳔리의 막켜스니

情絲不斷如秋水 乙 졍잇는 실이 끈허지지 아니 가을믈 갓도다

枝上鶯語不關愁	五	가지우희ᄭᅬᄭᅩ리말은근심을ᄭᅵ지못ᄒᆞᆫ
帳裏燈火虛報喜	乙	장속의등화는헛도이깃붐을보ᄒᆞ는도다
情衣裁出篋中羅	爲尼	졍의ᄯᅳᆯ생각가온ᄃᆡ깁으로말나내니
針線纔奉淚已多	乙	침션을겨오ᄆᆞᆯ미눈물이만토다
却伴姮娥對孤月	伊五	항아의외로온달대ᄒᆞᆫ거ᄉᆞᆯ대ᄒᆞ거ᄉᆞᆯᄶᆨᄒᆞᆫ
不隨織女渡銀河	乙	직녀의은하수건너믈ᄯᆞ로지못ᄒᆞ도다
待子樓中妾淚垂	五	그ᄃᆡ기다리는누중의쳡의눈물이드리웟슬
望鄕臺上君心悲	乙	망향ᄃᆡ우희그ᄃᆡᄆᆞᄋᆞᆷ이슬푸도다
向君遑妾心中恨	爲尼	그ᄃᆡ를향ᄒᆞ여쳡의ᄆᆞᄋᆞᆷ을한ᄒᆞ니
窓下裁成織錦詩	乙	창하의셔직금시를ᄆᆞ드러엿더라

사랑ᄀᆞ흥연의시오언ᄉᆡᆯ흔여셧지 거년낭별쳡
곰년쳡사랑부ᄃᆡ 한쳡옥평시러여옥평낭ᄯᅡ
지돈여보아ᄉᆡᆯ흔여셧키되는그림라글블것

少妾紅蓮
再拜獻詩
蘇州刺使
相公閤下

去年郎別妾	伊五	거년의 낭이 쳡을 이별ᄒᆞ고
今年妾思郎	乙	금년의 쳡이 낭을 싱각ᄒᆞ는ᄯᅩ다
妾意爲郎恨	伊五	쳡의 ᄯᅳᆺ지 낭을 위ᄒᆞ여 한ᄒᆞ나니
郎心似妾慷	乙	낭의 ᄆᆞ음이 쳡라 엇더ᄒᆞ료
郎爲多情郎	伊五	낭은 다졍ᄒᆞᆫ 낭이 되고
妾作薄命妾	乙	쳡은 박명ᄒᆞᆫ 쳡이 되도다
郎淚濕靑衫	伊五	낭의 눈물은 쳥삼의 젹시고
妾淚下紅頰	乙	쳡의 눈물은 홍협의 나리는ᄯᅩ다
郎爲崑崙山	伊五	낭은 곤륜산이 되고
妾作星宿河	乙	쳡은 셩슈히 되며
流時同一脈	奴乙	흐를 흡ᄉᆞ미 일ᄆᆡᆨ의 ᄀᆞᆺ트니
千載不消磨	乙	쳔지의 ᄉᆞ라지 아니ᄒᆞ는ᄯᅩ다
郎爲丹桂月	伊五	낭은 단계 달이 되고
妾作長庚星	乙	쳡은 장경셩이 되며
東生復西斜	爲也	동으로 나고 셔흐로 빗기뫼

徘徊到天明	乙	배회ᄒᆞ여 ᄒᆞ날 밝기의 이르럿도다
郎爲千尺松	五伊	낭은 쳔쳑송이 되고
妾作蔡蘿草	乙	쳡은 여라풀 넝쿨이 되여
却將凌霄意	奴	문득 능소ᄒᆞ는 ᄯᅳᆺ을 가져
托藉傲霜操	乙	셔리를 업슈히 여기는 節操의 의탁ᄒᆞ도다
郎爲夜舒荷	五	낭은 밤의 ᄲᅮᆯ이는 연엽이 되고
妾作傾日藿	乙	쳡은 해를 기우리는 규곽이 되여
神光共離合	五伊	신광이 ᄒᆞᆫ가지로 이합ᄒᆞ고
貞心不改易	乙	곳은 ᄆᆞ음을 고치지 아니ᄒᆞ는도다
郎爲丹山鳳	五伊	낭은 단산의 봉이 되고
妾作龍門桐	乙	쳡은 룡문의 오동이 되여
翕頂一枝棲	爲也	ᄒᆞᆫ가지의 깃들이며
他樹不相容	乙	다른나무로 가지 아니ᄒᆞ는도다
郎爲白羽箭	五伊	낭은 흰깃 붓친 살이 되고
妾作金貫鈒	乙	쳡은 금으로 ᄭᅮ민 살집이 되여

射鳥復來還 爲也 서ᄅᆞᆯ位ᄅ 도라오니
必竟不離家 乙 필경 집을 ᄯᅥ나지 아니ᄒᆞᄂᆞᆫ또다
郎爲比翼鳥 五 낭은 비익조 되고 날기 ᄒᆞᆫᄃᆡ ᄒᆞ븟ᄂᆞᆫ 새 일홈
妾作合歡樹 乙 쳡은 합환수 되여 입히 ᄒᆞᆫᄃᆡ 븟ᄂᆞᆫ 나무 일홈
使將有情枝 爲也 유졍ᄒᆞᆫ 가지ᄅᆞᆯ 가져
永棲有情羽 乙 유졍ᄒᆞᆫ 날ᄀᆡᄅᆞᆯ 깃드리게 ᄒᆞ리로다
郎爲團〻扇 伊五 낭은 둥근 부체 되고
妾作瑟〻風 乙 쳡은 슐〻ᄒᆞᆫ ᄇᆞᄅᆞᆷ이 되여
動搖却薰暑 爲尼 흔드는 ᄯᅢ로 더위ᄅᆞᆯ 믈니치니
出入懷袖中 乙 품과 ᄉᆞ미 속의 출입ᄒᆞᄂᆞᆫ또다
郎爲車上鐸 伊五 낭은 수레 우희 방울이 되고
妾作車下轂 乙 쳡은 수레 아래 박회 되여
流轉隨音響 爲也 흘너 굴너 소리ᄅᆞᆯ ᄯᆞ라
鏘〻聲相續 乙 장〻ᄒᆞᆫ 소리 셔로 이을이로다
郎爲枝上花 五 낭은 가지 우희 ᄭᅩᆺ치 되고

妾作花間葉 乙 쳡은꼿ᄉᆞ이의닙히되며

一從青春色 爲也 한가지봄빗스로

密々相稠疊 乙 밀々히조쳡ᄒᆞ도다

郎爲白玉瓶 伊五 낭은ᄇᆡᆨ옥병되고

妾作青絲繩 乙 쳡은푸른실이되며

絆繩繫一緼 爲也 미듭지며한즁의ᄆᆡ며

轆轤手降升 乙 녹노의소득나리는ᄯᅡ다

郎爲金博山 伊五 낭은금빡산되고

妾作蘭麝香 乙 쳡은난ᄉᆞ향이되며

青烟升紫霞 爲也 푸른연긔자하의오르며

飛入吐芬芳 乙 사람으로ᄒᆞ야곰토ᄒᆞ며회홉케ᄒᆞ도다

郎爲畫角枕 伊五 낭은화각벼ᄀᆡ되고

妾作鬱金衾 乙 쳡은울금이불이되며

卷舒相追隨 爲也 펼예며줄예서로ᄯᆞᆯ르니

裹在重々裡 乙 ᄡᅡ히여층々ᄒᆞᆫ속의잇도다

郎爲失羣鴻 伊五 낭은짝일흔기러기되고

妾作孤飛鷰 乙 쳡은외로이나는져비되며

春花憶秋月 爲尼 봄꼿치가을달을싱각ᄒᆞ니

來去不相見 乙 오고가며셔로보지못ᄒᆞ는도다

郎心如盤石 伊五 낭의ᄆᆞ음은반셕갓고

妾心如藕絲 乙 쳡의ᄆᆞ음은연실갓트며

藕絲有牽戀 爲代 연실은끈허져도달니여잇ᄉᆞ오고

盤石無轉移 乙 반셕은박켜여옴기지아니ᄒᆞ는지라

郎在天一涯 爲尼 낭이ᄒᆞᆫ울가희잇ᄉᆞ니

妾獨守空房 乙 쳡이홀노공방을직히는지라

把妾有情詩 爲也 쳡의유졍ᄒᆞᆫ글을가져

寄與有情郎 乙 유졍ᄒᆞᆫ낭의게붓치노라

ᄎᆞ셜자셔ᄉᆞᆼ인의게글을붓치고회답을기다리더니일일은ᄒᆞ리보ᄒᆞ되봉투의셔회신왓다ᄒᆞ고그글자셔ᄉᆞᆼ인의글을온례로ᄯᅦ혀보니리히은장이오쳡은욕이

라칭찬ᄒᆞ고 탄복ᄒᆞ여왈 셕ᄌᆞ의 주되 일ᄎᆔ을 주엇ᄉᆞ고
구티공이 일쳡을 주어 시명이 쳔고의 젼ᄒᆞ여 나ᄂᆞ다 원미
지의 니ᄎᆔ 일쳡이라 문장이 기고금의 ᄒᆞᆫ나ᄒᆡ라 ᄒᆞ엿더니 나의 쳐쳡
의 문장 진ᄉᆞ원미지 족함 최즁의 더으니 ᄎᆞ믈이 의과ᄒᆞᆫ 긜뇌 ᄆᆞᆨ셤
ᄒᆞ여 호년이 ᄲᆞᆯ이 쳔이지 각의ᄂᆞᆫ 호이나 ᄎᆞᆷ흡다 흉악이 ᄆᆞᆨ명ᄒᆞᆫ지
ᄉᆞᆼ박ᄃᆞᆨᄒᆞ니 가ᄎᆡᆨ지 아니ᄒᆞ며 오ᄅᆞᆯ즉 다려국 ᄉᆞ가지평이 ᄎᆞ시 우변ᄒᆞ드라 ᄒᆞ
더니 ᄀᆞᆼ음이 ᄒᆞᆯ〻ᄒᆞ여 삼년이 되엿더니 가ᄌᆡᆼ 황졔셔 계들 ᄋᆡᆫ용ᄒᆞ시고
님즁을 니ᄎᆔ시며 쳔ᄒᆡ믈을 ᄂᆡ리ᄉᆞ ᄉᆞᆼ셔를 ᄉᆞᆷᄒᆞᆫᄒᆞ여 용독각 ᄌᆞᆨᄒᆞᆨ
ᄉᆞᆼ견ᄒᆞ고 부ᄉᆞᆼ셔로 블ᄒᆞ시니 ᄉᆞᆼ셰쳔을 ᄉᆞᆯ임어 고향의 도라오며 노모
와 ᄉᆞᆼ쳐쳡이 ᄆᆞᆨ양ᄒᆞ니 화〻ᄒᆞᆫ 질기다 엿〻ᄒᆞᆫ 깃븜에 일흘 난
괴ᄂᆞᆫ 쳑다ᄒᆞᆫ 장은 셩족의 은혜더라 일〻ᄒᆞᆫ락 즁ᄌᆞ손이 션
션ᄒᆞ여 남부인은 ᄌᆞ일녀ᄅᆞᆯ 두고 졔부인은 일ᄌᆞᄅᆞᆯ 두고
ᄌᆞᄉᆡᆼᄌᆞᄂᆞᆫ 일ᄌᆞ 일녀ᄅᆞᆯ 두엇ᄉᆞ니 부쳐 모ᄉᆞᆼᄒᆞ여 ᄃᆡ〻 희고 ᄉᆞᆫ
ᄢᅮᆨ이 ᄉᆞ회셤ᄒᆞᆯ 쳬라 다 초년 ᄀᆞᆫ란ᄒᆞ여 ᄆᆞᆫ복이 ᄆᆞᆨ즁ᄒᆞ더라 이
ᄆᆞᆯ이 ᄆᆡᆫ멸ᄒᆡ 엿ᄉᆞᆷ기로 괴ᄌᆞᆨ을 노ᄒᆞ노라

蘇若蘭傳〇東晉隆元年間有一名宦姓蘇名道質前任陳留令也晚生一女名曰若蘭自幼少時儀容秀麗姿性英慧博於經史詞華精明工於針線才質尤妙年至十六爲秦州刺使竇滔之妻滔字連波右將軍真之孫也若蘭于歸竇氏也事舅姑而能盡誠孝御婢僕而並行恩義一家雍穆四隣敬服相對如賓常慕郤缺之妻忘其家貧比諸黔婁之夫婦夫婦之間如鼓琴瑟閨壼之內無所睚眥刺使復以鎭撫使出守襄陽自襄陽距京數千里地接流沙音信亦稀積年屯戍欲歸未還蘇氏獨守空閨不禁日夜之思遂成織錦回文詩五彩相宣錦幅長廣不過七八寸綉詩三十餘首詞格之高古才情之奇絕超古邁今有一無雙徘徊宛轉自成文章一本獻于天子一本送于襄陽乃璇璣圖龜文圖也未幾觧任歸家蒼顏鶴髮夫婦聯床鸞停鵠峙子孫滿堂世世科宦綿綿不絕人莫不欽歎今觀夫兩本回文詩則蘇氏可謂人間之謫仙天上之織女也

君承皇詔按邊戍 爲尼 그ᄃᆡ 황졔 조셔ᄅᆞᆯ 밧ᄌᆞ와 변방의 슈자리 가니

送君遠別河橋路 乙 그ᄃᆡᄅᆞᆯ 보ᄂᆡ ᄆᆡ 머리 ᄒᆞ고 길의 이별ᄒᆞ도다

含悲掩淚贈君言 爲尼 슬픔을 머금고 눈믈을 ᄀᆞ리와 그ᄃᆡ의게 말ᄉᆞᆷ을 주니

莫忘恩情便將去 乙 은졍을 잇지 말고 곳 장ᄎᆞ 가는 任다

何事一去音信斷 古 무ᄉᆞᆫ 일노 ᄒᆞᆫ번 가며 음신이 ᄭᅳᆫ허젼고

遺妾孱幃春不暖 乙 쳡의 병풍의 ᄡᅵᆺ친 봄이 더옵지 안토다

瓊瑤階下碧苔生 伊五 구슬 셤돌 아ᄅᆡ 푸른 잇기 나고

珊瑚帳裏紅塵滿 乙 산호 장ᄉᆞ의 붉은 틔글이 가득ᄒᆞ도다

此時遠別無驚魂 爲尼 이ᄯᅢ의 먼ᄃᆡ 이별ᄒᆞᄆᆡ ᄂᆞᆯ양 혼이 놀나니

將心何托更逢君 古 ᄆᆞ음을 장ᄎᆞ 어ᄃᆡ 부ᄎᆞ ᄒᆞ여야 다시 그ᄃᆡᄅᆞᆯ 만날고

一心願作滄海月 伊五 ᄒᆞᆫ ᄆᆞ음은 창ᄒᆡ 달 되기ᄅᆞᆯ 원ᄒᆞ고

一心願作嶺頭雲 乙 ᄒᆞᆫ ᄆᆞ음은 영두 구름 되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도다

嶺雲歲歲逢君面 伊五 뫼 구름은 ᄒᆡᄆᆞ다 그ᄃᆡᄅᆞᆯ 맛나고

海月年年照得遍 乙 바다 달은 ᄒᆡᄆᆞ다 두루 비최도다

飛來飛去到君傍 爲也 ᄂᆞ라 오ᄅᆞ 가셔 그ᄃᆡ의 겻ᄐᆡ 일으어셔

千里萬里遙相見 乙 쳔리 만리의 먼ᄃᆡ셔 ᄯᅩ 보리로다

道道路遠關山隔 爲尼 길이 멀고 멀어 관산이 막켜스니

恨君塞外長爲客 乙 그ᄃᆡ 변방 밧긔 길이 손이 되믈 恨ᄒᆞᄂᆞᆫ도다

去時送別蘆葉黃 加尼 갈 닙 누를 ᄯᅢ 이별ᄒᆞ여 보ᄂᆡ엿더니

誰悟已輕柳花白 古 뉘 버들 곳치 흰 줄 ᄭᆡ달을이오

한문	토	언해
百花散亂逢春早	爲尼	일ᄇᆡᆨ ᄭᅩᆺ치 어질어이 흣허져 일즉 봄을 만낫스니
春意催人向誰道	五	봄ᄯᅳᆺ지 ᄉᆞ람을 지촉ᄒᆞ미 누구를 향ᄒᆞ여 일을고
垂楊滿地爲君攀	爲尼	버들이 들이워 ᄯᅡᆼ의 가득ᄒᆞ미 그ᄃᆡ를 위ᄒᆞ여 잡으나
落花滿階無人掃	乙	ᄯᅥ러진 ᄭᅩᆺ치 섬돌의 가득ᄒᆞ되 쓸 ᄉᆞ람이 업도다
遮前春草面芬芳	爲尼	뜰 압희 봄풀은 ᄂᆞᆺ출 ᄭᅩᆺ답게 ᄒᆞ니
抱得秦箏向華堂	乙	진ᄶᅢᆼ을 안아 화당으로 향ᄒᆞ는도다
爲君彈得江南曲	爲也	그ᄃᆡ 위ᄒᆞ여 강남곡을 ᄐᆞ며
附驥情深寄朔方	乙	깁흔 졍을 삭방의 붓치도다
朔方迢遞山難越	爲尼	삭방이 멀미 산을 넘기 어려우니
萬里音信長斷絶	乙	만리의 음신이 길이 ᄭᅳᆫ허졋도다
銀粧枕上淚沾衣	五	은으로 ᄭᅮ민 벼ᄀᆡ 우희 눈물이 옷슬 적시ᄆᆡ
金縷羅裳縫皆裂	乙	금으로 수노흔 비단 치마는 혼솔이 ᄯᅡ러졋도다
三春鴻鴈渡江聲	隱	삼츈 홍안이 강 건너는 소ᄅᆡ는
此時離人斷腸情	乙	이ᄯᅢ 이별ᄒᆞᆫ ᄉᆞ람의 창ᄌᆞ를 ᄭᅳᆫ토다
箏絃未斷腸先斷	爲尼	ᄶᅢᆼ줄이 ᄭᅳᆫ허지지 아코 창ᄌᆞ 먼져 ᄭᅳᆫ허지니
怨結先成曲未成	乙	원망ᄒᆞ는 ᄆᆞ듸가 먼져 일우고 곡죠를 일우지 못ᄒᆞ도다
君今憶妾重如山	爲尼	그ᄃᆡ 이제 쳡을 ᄉᆡᆼ각ᄒᆞ미 무겁기 산 갓트니
妾亦思君不暫閑	乙	쳡이 ᄯᅩᄒᆞᆫ 그ᄃᆡ를 ᄉᆡᆼ각ᄒᆞ미 잠시도 ᄒᆞᆫ가치 못ᄒᆞ도다
纖將一本獻天子	爲也	ᄒᆞᆫ 본을 ᄶᆞ셔 텬ᄌᆞᄭᅴ 드려
願放阿夫及早還	乙	나의 계아비를 노아 ᄲᆞᆯ이 돌아오기를 원ᄒᆞ노라

소약난의지은시칠언팔귀오언십자두리쁜그림과글쓴것

跋蘇氏之言
行針才可謂
女閨中君子
而世遠名湮
無行于世亦
足為欠典也
余於閒中頒
以湯筆考諸
史而立傳解
其謗而翻真
家閱也詞調
也果絕世奇
艷待與盛矣
歲疆圉單
閼黃鍾月
松史老儈
撰
岳下道人訂
丹谷居士寫

漢文	吐	諺解
愁多窓下啼紅頰	伊五	근심만ᄒᆞᆫ창아ᄅᆡ블근ᄲᅣᆷ이울고
悉結臺前畫翠眉	乙	원망을ᄆᆡᆺᄂᆞᆫᄃᆡ앏희프른눈셥을그리도다
魚鴈未能傳錦字	爲尼	어안이능히금ᄌᆞ를젼치못ᄒᆞ여
夢魂那得附寒衣	五	ᄭᅮᆷ의엇지겨울옷술븟칠고
著衣樓上知腰細	五	옷술입ᄂᆞᆫ누우희허리가ᄂᆞᆫ줄알고
搗練砧前覺力微	乙	깁을다듬ᄂᆞᆫ돌앏희힘이젹은줄ᄭᆡ닷ᄂᆞᆫ도다
春去秋來花盡落	爲代	봄이가고가을이오ᄆᆡᄭᅩᆺ치다ᄯᅥ러지되
征人胡不及時歸	五	졍인은엇지ᄯᅢ의밋쳐도라오지아는고
紗窓夜掩如珠淚	五	깁창을밤의가리ᄃᆡ구슬눈물갓고
錦戶朝粧似月眉	乙	비단지게의아참의단장ᄒᆞ미눈셥이달갓도다
屢想欲將通遠信	爲代	열어번ᄉᆡᆼ각ᄒᆞ여먼ᄃᆡ소식을통ᄒᆞ고자ᄒᆞ되
春風誰與送征衣	五	츈풍이눌노더브러졍의를보낼고
織成錦字書難寄	五	비단글ᄌᆞ를ᄶᆞ되글을븟치기어렵고
挑盡銀燈影易微	乙	은등잔을도〻아다ᄒᆞ미그림자젹기쉽도다
樑上願同雙鸞子	爲也	들보우희쌍제비나되기를원ᄒᆞ여
一年惟得一廻歸	乙	오직일년의ᄒᆞᆫ번도라오기나[illegible]들아ᄒᆞ노라
夜夜啼紅頰	伊五	밤마다블근ᄲᅣᆷ이울고
朝朝畫翠眉	乙	아침마다프른눈셥을그리ᄂᆞᆫ도다
有心傳錦字	乃	비단글ᄌᆞ를젼ᄒᆞᆯ마ᄋᆞᆷ이잇스나
無計付寒衣	乙	겨울옷술븟칠계약이업도다

原文	吐	諺解
結束知腰細	五	ᄆᆡ오매 허리 가ᄂᆞᆯ믈 알지고
追遵覺力微	乙	ᄯᆞᆯ을 ᄯᆞ로매 힘이 젹으믈 ᄭᆡ닷는도다
但觀花盡落	古爲	다만 ᄭᅩᆺ시 다 ᄯᅥ러지믈 보고
無見及時歸	乙	ᄯᅢ의 밋쳐 도라오믈 보지 못ᄒᆞ도다
每掩如珠淚	五	ᄆᆡ양 눈믈이 구슬 ᄀᆞᆺ튼 거ᄉᆞᆯ 가리고
時嚬似月眉	乙	ᄯᅢ로 ᄃᆞᆯ ᄀᆞᆺ튼 눈셥을 ᄶᅵᆼ그리는도다
將要通遠信	也爲	쟝ᄎᆞ 먼리 소식 통ᄒᆞᆷ을 가져셔
何不送征衣	五	엇지 졍의를 보내지 못ᄒᆞ는고
鴈盡書難寄	五	기러기 다ᄒᆞ매 글 부치기 어렵고
蟾高影易微	乙	ᄃᆞᆯ이 놉흐매 그림ᄌᆞ 젹기 쉽도다
願同雙燕子	也爲	ᄶᅡᆼ졔비 ᄀᆞᆺ기를 원ᄒᆞ여
惟得一迴歸	乙	오직 ᄒᆞᆫ번 도라오기나 어들가 ᄒᆞ노라
恨唱歌聲咽	五伊	ᄒᆞᆫᄒᆡ 브르ᄂᆞᆫ 노ᄅᆡ 소ᄅᆡ 슬프고
愁翻舞袖遲	乙	근심ᄒᆞ여 뒤치미 춤추는 소ᄆᆡ 더ᄃᆡ도다
西陵日欲暮	尼爲	셔릉의 날이 져물고져 ᄒᆞ매
是妾斷腸時	乙	졍히 쳡의 창ᄌᆞ 근흘 ᄯᅢ러라
何憐馬含草	古爲	ᄂᆡ어 이옷 말은 ᄲᅧᆺ 풀을 먹엇슨
日毛公托口中	乙	날 모공은 입가온ᄃᆡ 의탁ᄒᆞ도다
不木頭誅刃抹	五伊	나아 나모 머리ᄂᆞᆫ 칼노 ᄲᅥᆺ츨 버혓고
思心上寘車中	乙	ᄉᆡᆼ각ᄒᆞᆯ고 ᄆᆞ음 우희ᄂᆞᆫ 술위 가온ᄃᆡ 두엇더라

평양기생부용의상사시십팔자보그림과글풀것

怨		歸		勿
	泣		泉	
含		相		使
	中		孤	
子		隨		懦
	月		魂	
女		兒		弱

別 尼驚 니별ᄒᆞ니

思 乙 싱각ᄒᆞ노라

路遠 尼驚 길이머니

信遲 乙 소식이더듸다

念在彼 古驚 싱각은져긔잇스니

身留玆 乙 몸은이에머므도다

巾紗有淚 古驚 깁슈건의눈물이잇스니

扇紈無期 乙 깁부치의긔약이업도다

練亭月上夜 五 연광정의ᄃᆞᆯ뜨는밤이라

香閣鐘鳴時 乙 향각의죵을치더라

依孤枕驚殘夢 古驚 외로온벼기를의지ᄒᆞ여쇠잔ᄒᆞᆫᄭᅮᆷ이놀나고

望歸雲悵遠離 乙 도라가는구름을ᄇᆞ라며멀니ᄯᅥ남을슬허ᄒᆞ도다

日待佳期愁屈指 五 날마다가긔를기다리매근심으로손을곱고

晨開情札泣支頤 乙 새벽의정찰을열매눈물이턱의리왓도다

顔色憔悴把鏡下淚 古驚 안ᄉᆡᆨ이쵸최ᄒᆞ매거울을잡아눈물을나리고

歌聲嗚咽使人含悲 乙 가셩이오열ᄒᆞ매사ᄅᆞᆷ으로슬품을머금엇도다

拔銀刀斷弱腸非難事 言馬隱 은도를ᄲᆡ야약장을ᄭᅳᆫ키에어려온일이아니로되

蠙珠履送遠眸更多疑 乙 쥬리를신을ᄂᆞᆫ멀니보매못쳐의심이만토다

春不來秋不來君何無信 旅伊 봄과가을의오지아니ᄒᆞ니그ᄃᆡ엇지무신ᄒᆞ뇨

朝遠望夕遠望妾獨見欺 乙 아침과져녁의멀니바라매쳡만홀노속는도다

浿江成平陸後鞭馬其來否 牙 픠강이륙지된후의말ᄐᆞ고오려는가

長林變大海初乘船欲渡之 牙 장림이ᄃᆡᄒᆡ된후의ᄇᆡᄐᆞ고오려는가

好緣斷惡緣回世情無人可測 五伊 조흔인연은ᄭᅳᆫ허지고모진인연도라오니세상인심을가히칭양치못ᄒᆞᆯ

別時多見時少天意有誰能知 牙 니별은만코보기는져그니ᄒᆞᄂᆞᆯᄯᅳᆺ을누가능히알미잇슬고

一片香雲楚臺夜仙女之夢在某 旅 ᄒᆞᆫ조각향긔로온구름초ᄃᆡ밤의션여의ᄭᅮᆷ이뇌엇스며

數聲清簫秦樓月弄玉之情有誰 五 수셩쳥소진누ᄃᆞᆯ근등소진누의롱옥의졍이뉘잇슬고

不思自愚更上浮碧樓可惜紅顏老 爲古
성각지말므자호되싱각호여다시부벽누의올나 가히홍안는는 거슬앗기고

欲忘難忘愁倚牧丹峯猶憐綠鬢衰 乙
잊으자호되잇기어려워근심으로모란봉의지호야오히려녹빈 쇠호걸슬허

孤處孀閨腸雖如雲三生佳約寧有變 伊旀
외로이상규의쳐호미창자비록구름갓트나 삼싱가약을엇지변호미잇슬고

獨守空房淚縱如雨百年貞心終不移 乙
홀노공방을직히미눈물이비록비갓트나 빅년정심을종시 변치아니호리라

罷春夢開竹窓迎花柳少年摠是無情客 伊五
봄꿈을셰야죽창을열고화류쇼년을마지미 한도모지무정 한객이오

攪香衣推玉枕送歌舞童類莫非可憎兒 乙
향의를떨치고옥침을밀미가무동류를보니아니가증 한아희 러라

三時出門望出門望甚矣君子薄情誠如是 旀
삼시문의나빠라고빠라미심호다그리박정이진실노이러하가

千里待人難待人難哀哉賤妾孤悰果何其 五
쳔리의사람기다리기어렵고어려오미슬프다쳡의외로온마음 이마연엇더할고

惟願寬仁大丈夫決意渡江香情燭下欣相對 爲也
오직관인한되장부는결단코강을건너 향긔로온정을촉불아래 깃비셔로되할고

勿使懦弱兒女子含怨歸泉孤魂月中泣相隨 乙
나약한아녀자로하야금원을먹음어 외로온혼이구쳔의도라 가달가온되울게말소

唐寅 一世歌

[illegible]

回文

在纖楊拄一
人　閑
運　新
床玉研拜歌
眞雲花歸去
已　馬
時　如
醒微力酒飛